

세계도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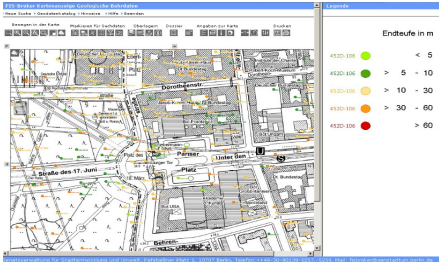
헤드라인뉴스	1	140년간의 도시지질탐사 결과를 3D 지도에 담아 공개	베를린
문화·관광	3	친환경 산책코스를 소개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출시	파리
	6	재미있는 도시 만들기 사례	보스턴 등
산업·경제	8	파리 디자이너와 교토 장인과의 협업 프로젝트 시행	파리
행정·교육	11	익명 방식으로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실시	베를린
	14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 시행	뉴사우스웨일즈
환경·안전	17	아동 위기 상황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어린이 110번지의 집’ 모의훈련 실시	도쿄
도시교통	19	보행자 우선 표시의 시각적 효과	시카고
	20	도로상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도시 도로 전체에 대한 측량작업 실시	베를린
	22	“도쿄 미드타운 관내 물류 효율화 계획”, 지구 물류 효율화 인증 제도의 첫 인증 사례로 선정	도쿄
도시계획·주택	24	다섯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 도시종합계획 발표	브리스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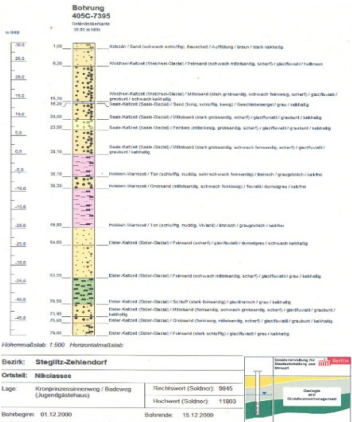
140년간의 도시지질탐사 결과를 3D 지도에 담아 공개

베를린市 / 정보·기타

- 지질 상태와 지질 구조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은 도시계획과 건설공사, 지열이용 및 지하수 개발 등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임. 베를린市는 그동안 도시의 땅 속 지질 구조, 지반구조 및 지하수 데이터, 지열 데이터 등 지질조사 자료들을 공개하고, 지층단면도, 지질지도, 건설공사용 지질지도, 지열지도 등을 작성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그런데 이번에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市는 두 가지 도시 지질정보 서비스를 새로이 추가함. 먼저 2014년 7월에 그동안의 시추지질조사의 결과를 지도화하여 공개하였고, 9월에는 시추조사 데이터들을 토대로 도시 땅 속에 대한 3차원 모델을 만들어 3D 어스뷰어(Earth Viewer)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
- 이번에 공개된 시추지질지도는 市가 140년 이상 추진해오고 있는 도시지질 탐사의 결과들을 지도로 옮긴 것임. 이 지도에는 베를린 시내의 15만 개 이상의 시추지질조사 지점들이 표시되고, 시추위치, 최종깊이, 지반 상층부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음. 각 지점들에는 지층의 층위학적, 암석학적, 발생학적 지질정보가 표시됨. 또한 시추조사의 단면도 그래프를 첨부하여 각 지점마다 땅 속 지층구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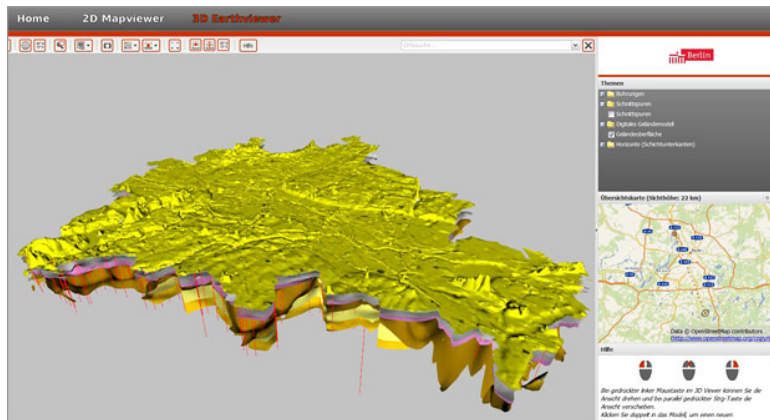


시추지질조사 지도(점들은 깊이별로 시추위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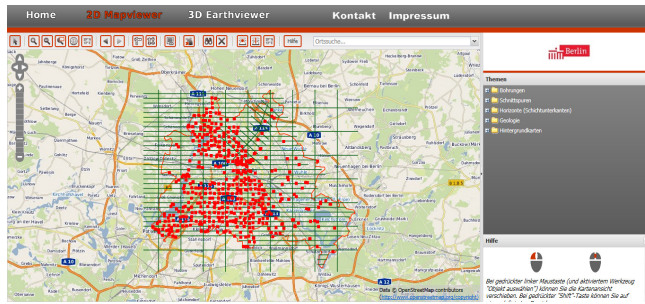
시추조사 단면도 그래프

-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3차원 도시지질 모델은 지질지도와 지질 단면도의 2차원적 한계를 극복하고 땅 속 지질 구조에 대한 공간적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됨. 도시발전 환경국의 프로젝트팀은 다양한 지질조사 및 탐사의 결과들과 이번 시추조사 데이터를 연역해 구성한 단면도를 토대로 도시 지층의 분포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베를린市 땅 속의 지질학적 제4기와 제3기까지의 지층구조를 3차원적으로 완벽하게 구성해냄.
- 3D 어스뷰어를 통해 베를린市의 땅 속은 지질학적 통일체로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음. 이용자는 지반표면과 지층들을 각 층별로 개별적으로 선택해 관찰할 수 있고, 형태를 돌려볼 수 있으며, 위치와 범위도 확대 또는 축소해서 관찰할 수 있음. 시추조사 결과와 단면도도 찾아볼 수 있음. 지점을 정하고 도구를 선택해서 직접 가상적 보링(boring)과 단면도 작성을 실행해 볼 수도 있음.



3D 어스뷰어를 통해 본 베를린市 땅 속 지질 구조

- 이와 함께 도시지질지도도 새롭게 2D 맵 뷰어를 통해 제공함. 이용자들은 2D 맵 뷰어를 통해서도 베를린市 땅 속의 제4기, 제3기 지층들의 분포와 구성에 관한 정보, 지질학적 단면도 및 시추조사 데이터도 찾아볼 수 있음. 사용지침(guidance)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베를린의 전체지형도 및 지질학적 전체지도도 첨부함.



2D 맵 뷰어를 통해 본 베를린시 땅 속 지질 구조

- 베를린시는 도시지질 3차원 모델이 과학적, 도시계획적인 문제들에 대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정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땅 속과 땅 속의 복합적인 지층구조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일깨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시는 앞으로 층위학적인 기준에 기초해서 3D 모델을 확대하고, 이를 과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용분야를 위한 기초정보로서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임.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407/nachricht5315.html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umwelt/wasser/geologie/de/bohrung.shtml>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409/nachricht5356.html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umwelt/wasser/geologie/de/landesmodell.shtml>

문화·관광

친환경 산책코스를 소개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출시

파리시 / 문화·관광

- 파리시는 2014년 5월에 친환경 도시산책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인 “지속가능한 파리 산책”을 불어판(Balades Paris durable)과 영어판(Paris Eco Walks)

으로 각각 출시하였음. 무료로 출시된 이 애플리케이션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주제로 파리의 11개 친환경 산책코스를 상세히 소개해줌.

- 파리의 풍부한 역사문화 유산과 녹지 공간, 그리고 새로 정비된 도시공간을 통합해 소개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도시 내에 알려지지 않은 종 다양성의 여러 측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볼 수 있게 해주며, 새로운 시각으로 파리의 자연환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각 산책 경로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는 각자 자신의 걸음 속도대로 산책하면서 음성해설과 그림, 사진 등을 통해 주변 자연환경을 좀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음.
- 각 산책 경로는 2시간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리가 새롭게 정비한 공원들의 컨셉트를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파리의 희귀한 동식물들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해줌. 그 밖에도 이용자들은 산책 중에 찍은 사진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지속가능한 파리 산책’ 웹 사이트(www.baladesparisdurable.fr)에 직접 올릴 수 있어, 같은 지점을 산책한 다른 이용자와 산책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음.
- 그림과 음성해설이 붙여진 비디오가 각 경로를 구성하는 매 단계별로 제공되어, 마치 박물관 전시 해설처럼 도시 산책에서 풍부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산책코스 애플리케이션 구동 모습

- 한 번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파리市的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정책 등에 대한 소식과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음. 市는 정기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임.

11개 친환경 산책코스 소개

- 파리 도심 역사문화 동네 산책 (3區, 4區)

산책거리: 4.5 km(레퐀블리크 광장(Place République)에서 아르세날 연못(bassin de l'Arsenal)까지)

소요시간: 약 2시간 30분(16단계로 구성)

키워드: 도시디자인 보행로, 다양한 동식물 안내판, 녹지 공간, 역사유적 등

- 파리 북동부 지속가능한 건축기행 (19區)

산책거리: 3.5 km(오르그 드 플랑드르(Orgues de Flandres) 복합단지에서 생-드니 운하까지)

소요시간: 약 2시간(11단계로 구성)

키워드: 도심정비, 지속가능한 발전, 재생 에너지, 70년대 건축된 주택단지의 녹지구역들과 현재 진행 중인 도심정비 프로젝트의 통합

- 녹지공간 탐방 (14區)

산책거리: 3.5 km(몽파르나스 공원묘지 근방 포트 방브 정원(jardin de la porte de Vanves))

소요시간: 약 2시간(14단계로 구성)

키워드: 파리의 종 다양성의 보고, 보도블럭과 혼합된 정원, 공유 텃밭, 비둘기집, 에너지 고효율 도심정비, 몽파르나스 공원묘지 출발 파리 외곽순환선 전차 이용

- 파리 꽃 공원

산책거리: 2 km

소요시간: 2 시간(13 단계로 구성)

키워드: 30헥타르의 공원에서 식물원과 풍부한 종 다양성 탐색

- 도심지 센 강 산책

산책거리: 2.5 km(마리 다리(Pont Marie)에서 베르 갈랑 광장(square du Vert Galant)까지)

소요시간: 약 1시간 45분(11단계로 구성)

키워드: 센 강을 둘러싼 강변 녹화, 정비된 보행로, 종 다양성, 역사유적 등

- 센 강 서쪽

산책거리: 3 km(아르 다리(pont des Arts)에서 알마 다리(pont de l'Alma)까지)

소요시간: 약 2시간(11단계로 구성)

키워드: 친환경 산책로, 파리의 다양한 생태공원, 센 강변 정비사업, 파리의 생활 풍경

- 7區의 공원들

산책거리: 2.5 km(바빌론 가(rue de Babylone)의 광장과 공원부터 상 드 마르스 광장까지)

소요시간: 약 2시간(9단계로 구성)

키워드: 예술공원, 식물원, 생태공원, 문화유적

- 센 강 동쪽

산책거리: 2.5 km(톨비악 다리(Pont de Tolbiac)부터 티노 로시 공원(Jardin Tino Rossi)까지)

소요시간: 약 1시간 45분(7단계로 구성)

키워드: 강변 정비사업, 포구 풍경, 생태공원

- 센 강 하구

산책거리: 3.5 km(알마 다리에서 앙드레 시트로앵 공원까지)

소요시간: 약 2시간 30분(10단계로 구성)

키워드: 강변 정비사업, 물고기 산란장, 수도정비장, 하수처리장, 수상택시, 생태공원 등

- 친환경 산책로 (11區)

산책거리: 2.5 km(샤론 가(la rue de Charonne)에서 볼테르 대로(boulevard Voltaire)까지)

소요시간: 약 2시간(15단계로 구성)

키워드: 건물별 퇴비장, 연못, 비둘기 집, 패시브 에너지 빌딩의 사회 임대주택, 야생 풍경이 있는 공원과 광장, 공유텃밭과 가로수 길로 이어진 친환경 산책로

- 수도 파리의 태양 에너지 발전 (18區)

산책거리: 2 km(에콜 공원(jardins d'Eole)부터 파줄 종합상가를 거쳐 구에트 도르(Goutte d'Or)까지)

소요시간: 약 1시간 45분(10단계로 구성)

키워드: 파리의 서민층 지역을 가로지르는 친환경 거리, 태양광 발전소, 생태공원 컨셉트로 새로 개장한 공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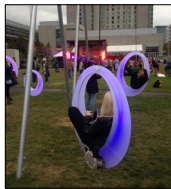
http://www.paris.fr/pratique/paris-ville-numerique/les-applis-de-la-ville/balade-paris-durable-visitez-la-capitale-sous-un-jour-nouveau/rub_10213_stand_133822_port_25689

재미있는 도시 만들기 사례

미국 보스턴市, 영국 브리스톨市 / 문화·관광

- 많은 도시들이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미국 보스턴(Boston)市와 영국 브리스톨(Bristol)市의 사례들은 이러한 노력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나 복잡한 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보스턴市는 도심 공간(컨벤션 센터)에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음. 이곳에는 계란형의 빛나는 그네, 탁구대, 야외용 안락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음.

-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시설이 종합적으로 계획되어 만들어진 공원이 아닌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임. 이곳은 컨벤션 센터의 확장 계획에 따라 공사가 진행될 공간이지만, 공사 이전에 어떠한 개념으로 공원이 계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험공간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음.
- 이곳에 설치된 놀이기구는 단순히 의자나 그네에 불과하지만 음악과 어울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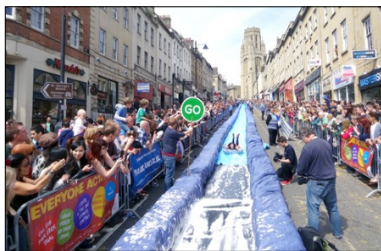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



벽에 소원을 나열한 모습

- 영국 서부의 항구도시 브리스톨市는 일반시민들에게서 모금한 기금으로 슬라이딩 행사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함. 100m에 달하는 언덕길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슬라이딩은 도시 자체가 즐거움을 주는 재미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즐거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기금으로 마련된 100m에 달하는 슬라이딩 시설

<http://www.theguardian.com/cities/2014/sep/04/playable-cities-the-city-that-plays-together-stays-together>

<http://www.citylab.com/design/2014/09/wait-your-turn-for-the-swings-at-bostons-adult-playground/380355>

<http://www.sfgate.com/bayarea/place/article/S-F-s-uncommon-areas-Plazas-created-from-scraps-5744860.php#photo-6838558>

산업·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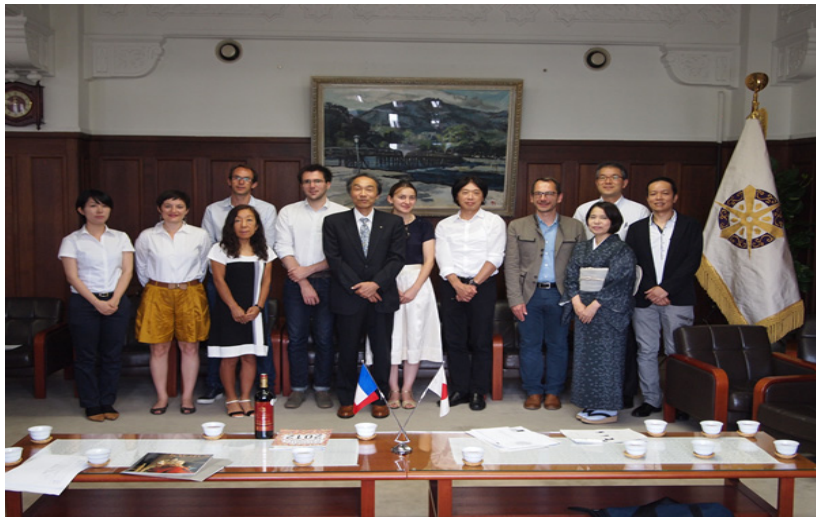
파리 디자이너와 교토 장인과의 협업 프로젝트 시행

파리市 / 산업·경제

- 파리市와 교토市에서 공동 지원하는 교토 컨템포러리 프로젝트(Kyoto Contemporary projet)에 따라 10명의 파리 디자이너들이 2014년 8월 마지막 주에서 9월 첫째 주까지 교토를 방문해 일본 전통 공예기술의 장인들로부터 세대를 이어 내려온 기술을 배우고 공통의 사업계획을 세움.
- 파리 디자이너와 교토 장인들과의 이 창조적 파트너십(partnership)은 “파리의 아틀리에들”(파리市 고용경제국 산하 예술·디자인·패션진흥원)이 주관하고 파리市와 교토市의 재정 지원을 받아 성사된 것임. 이번 여행은 지난 1월 교토의 장인들이 단체로 파리를 방문한 것에 대해 화답하는 것으로 이 두 번의 여행을 통해 서로 다른 두 문화에서 나온 전문가들 사이의 협업 관계가 시작됨.
 - 이번 두 번째 만남에서는 파리 디자이너들이 교토의 장인들이 일하는 장소에서 그들의 전통공예기술을 배우고, 그들과 함께 창조해 낼 제품 샘플에 대한 영감을 얻을 계획임.
 - 예를 들어, 디자이너 로랑 코리오(Laurent Corio)는 교토에서 옷칠 장인 이수케를 만나, 함께 새로운 램프 제품을 개발하기로 함. 로랑 코리오는 옷나무 채취 장소를 직접 방문해 천연염료의 생산과정을 배우면서, 화학염료와의 차이를 확실히 깨닫게 됨. 램프뿐 아니라 섬유 제품도 디자인하는 로랑 코리오는

또 교토에서 기모노 천 생산자들을 만나 전통방식으로 생산되는 기모노 천이 어떤 점에서 특별한지 절실히 느끼게 됨. 기모노 천, 단 한 가지를 생산하는 데 스무 명도 넘는 장인의 손길이 필요하며, 이 특별한 생산 공정에 따라 기모노 천의 각 문양과 색깔, 여러 문양의 조합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됨.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문화적 의미를 배우는 것은 프랑스 디자이너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됨.

- 자수 디자이너이자 데노방브르(Denovembre) 디자인社 대표인 쥐디트 부르댕(Judith Bourdin)은 교토 직물 장인들의 특별한 작업방식을 관찰할 기회를 가지면서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흡수하려고 함. 특별한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도구와 베틀, 베틀이 놓인 장소 등 모든 것이 상상력의 원천이 됨. 또 교토 주민의 전통가옥에서의 홈스테이 체험도 ‘영감을 주는 경험’임. 쥐디트 부르댕이 머문 집은 일본식 잠옷 생산자인 다이투 신구의 집으로서, 그녀는 오랫동안 일본식 누빔 천을 생산해 온 이 교토 장인과 함께 새로운 란제리 라인을 개발할 계획임.
- 그 외에도 파리 디자이너들은 도자기, 철공예, 목공예 등 다른 공예기술 장인들을 방문해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배우고 이를 제품개발로 연결하고자 함.



교토시청에 모인 파리의 디자이너와 교토의 공예장인들(사진: 미노루 츠카모토)

- 교토 컨템포러리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는 교토 장인과 파리 디자이너의 협업을 통한 제품 샘플 개발임. 이들은 2015년 1월 “파리의 아틀리에들” 전시장에서 시제품 전시회를 열 예정이며, 이후에 교토와 상하이에서도 순회 전시를 이어갈 예정임.

교토 컨템포러리 프로젝트 선정 9개 사업

- Noir Vif 디자이너 & 요헤이 도자기 공방

상감 기법을 활용해 오토도통한 한자 문양이 새겨진 찻잔 세트 디자인을 배움. 이 기술은 요헤이 장인만이 독특하게 보유한 것으로, 한자 문양은 우주와 다도의식을 연결하는 뜻을 지님.

Noir Vif 웹사이트: <http://www.noirvif.com/>

- Laurent Corio 디자이너 & 쿠로카치 방직 공방

로랑 코리오는 쿠로카치 공방이 일본 전통적인 가부키 공연 의상용으로 특별히 제작하고 있는 직물을 사용해 필통을 디자인할 예정임. 이 필통은 이 직물의 독특한 주름 덕분에 한층 더 특별한 모양이 될 것으로 기대됨.

Laurent Corio 웹사이트: <http://laurent-corio.com/>

- Laurent Corio 디자이너 & 이수케 목기

이수케 목기는 나무를 돌려 깎아 칠기를 만드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음. 로랑 코리오는 천연염료인 옷칠의 가치를 널리 알리면서 나무를 깎는 장인의 몸짓 또한 디자인에 담고자 함. 옷칠로 된 식기 모양에서 영감을 얻은 테이블용 램프를 디자인함.

Laurent Corio 웹사이트: <http://laurent-corio.com/>

- Denovembre社 & 다이투 신구 실내복

다이투 신구는 일본식 실내복 전문 장인임. 데노방브르(Denovembre)社は 다이투 신구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실내복 라인을 출시하기로 함. 데노방브르社は 관습적으로 단순한 디자인의 흰 잠옷을 만들어 왔지만, 이번에 다이투 신구社와 같이 일하면서 얇은 누비 천을 이용하고 새로운 색깔로 염색한 천을 쓰기로 함.

Denovembre 웹사이트: <http://www.denovembre.fr/>

- Denovembre社 & 오미야社

데노방브르社の 쥐디트 부르맹은 기모노 전문기업인 오미야社를 방문한 후 기존의 기모노 직물이 갖고 있는 다채로운 문양들을 활용해 새로운 약세서리들을 만들기로 함.

Denovembre 웹사이트: <http://www.denovembre.fr/>

- Anaïs Gauthier 디자이너 & 다케사다 죽공예 공방

아나이스 고티에는 일본의 대나무 공예기술을 배우고, 이 재료를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 상품을 고민 중임. 일본의 미니멀리즘(minimalism) 시대에 영감을 얻은 제품 라인을 출시할 예정임.

Anaïs Gauthier 웹사이트: <http://www.anaisgauthier.fr/>

- Saint Antoine 디자이너 & 쿠마가이 요업

쿠마가이는 도자기 공급자로서, 특히 유광 유약을 쓴 도자기 생산 전문기업임. 생 앙투안과 쿠마가이는 협업을 통해 화병에 꽃은 꽃의 그림자가 도자기 표면에 아름답게 맺히도록 하는 화병 제품을 생산하려 함.

Saint Antoine Design 웹사이트: <http://www.studiosaintantoine.com/studio/>

- Louise de Testa 디자이너 & 나카노-이수케 목주 공방
이 교토장인은 불교 스님들을 위한 목주 생산 전문가임. 루이즈 드 테스타 디나이너는 일반 목주가 아니라 색을 입힌 구슬을 써서 목주를 변형한 행운의 목걸이를 디자인할 예정임. 각 목걸이는 특별한 뜻을 지닌 매듭으로 마무리 할 계획임.

Louise de Testa 웹사이트: <http://www.louisedetesta.com/>

- Les Prémices 社 & 니시무라 기모노
프레미스 社は 기모노 천을 여러 겹으로 겹치는 니시무라 기모노 명인만의 기술에서 영감을 받아 3가지 타입의 피혁 제품을 개발함. 주머니형 디자인으로 카드지갑과 스마트폰을 모두 보관할 수 있는 서류 가방을 서로 다른 색깔과 패턴으로 최대한 다양한 조합으로 선보일 예정임.

Les Prémices 웹사이트: <http://www.collectif-premices.com>

http://www.paris.fr/accueil/accueil-paris-fr/des-designers-francais-au-japon/rub_1_actu_148114_port_24329

행재정·교육

익명 방식으로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실시

베를린市 / 행재정·교육

- 베를린市는 기회평등과 다양성 지향의 고용정책 실현을 위해 올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100여 개 일자리 신규 채용을 익명 방식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함.
- 나이·성별·가족관계·인맥·인종·성 정체성·장애·종교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모두 개인적 발전과 사회적 상승 기회를 주는 것은 구체적으로 차별 없는 취업 통로의 보장을 통해 이루어짐. 이것은 市 고용정책의 중요한 목표이고, 나아가 다양성 지향의 고용과 새로운 인력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이기도 함.
- 차별금지 정책의 관점에서 그리고 사회통합 정책의 관점에서 왜 익명 채용이 필요한지는 여러 연구결과에서 분명하게 드러남.
- 최근 콘스탄츠 대학의 연구팀은 경제학부 학생을 실습직으로 채용하는 회사에

천 개의 지원 서류를 보내 테스트를 함. 지원서의 내용은 동일하게 한 반면, 이름은 무작위로 독일이름 또는 터키이름을 적어 보냄. 그 결과, 터키이름의 지원자 중 합격통보를 받은 비율이 독일이름의 지원자에 비해 14% 적게 나옴. 특히 작은 회사의 경우는 합격률이 24%나 적었음.

- 베를린市の 고용평등연구소가 베를리너 타게스차이퉁(Berliner Zeitung)에 게재된 채용 공고들을 대상으로 신문의 채용 공고들이 차별금지법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를 분석한 2012년의 자료에서도 신문의 채용 공고가 여전히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채용공고 중 12%는 여전히 성별 또는 나이 제한을 명시함.
 - 많은 연구결과를 볼 때 이주자 출신, 아이를 가진 여성, 나이 많은 사람, 장애인들이 면접까지 가는 경우는 여전히 적음. 익명 채용은 이러한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한 방안임.
- 베를린市는 이미 익명 채용을 채택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연방정부의 차별금지 프로젝트의 결과를 근거로 올해 市の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정된 업무분야의 신규 채용을 익명방식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함.
- 업무직종은 기술직을 제외한 일반행정직, 노동보호 업무직, 경제지원 업무직, 청소년 업무직 등임.
 - 이번 프로젝트에는 베를린市 노동통합여성국과 내무스포츠국, 라이니켄도르프區, 판코우區, 샬롯텐부르크-빌머스도르프區, 미테區가 함께 참여하여 100여 개 일자리 신규채용을 익명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함.

익명 채용 과정

-
1. 각 채용기관의 규격화된 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해서 서류 접수
 2. 접수된 지원서의 익명성 타당 여부 검토
 3. 인적항목과 자격항목의 분리
 4. 오직 자격항목만 채용담당자에게 넘김
 5. 자격항목만을 심사해 면접자 선발
 6. 면접 통보
 7. 면접 시험에서 익명화된 인적사항 공개
-

- 익명 채용의 지원자는 규격화된 지원서 양식을 통해서 지원해야 함. 이 지원서는 자격 항목란을 상세히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인적 사항란은 짧게 표기하도록 구성됨. 자격 항목에는 학력, 경력, 실습경험 및 자원봉사 활동여부를 적음. 마지막 부분에는 지원 동기를 간결명료하게 작성해야 함.
 - 접수된 지원서는 새로 설치된 중립적 사무실을 통해 지원자의 인적사항란이 지원서에서 따로 분리 보관됨. 지원서는 자격사항란만 남은 상태로 채용담당자에게 넘겨짐. 채용담당자는 지원서에 적힌 경험과 자격에 기초해 면접자를 선발함.
 - 지원자의 인적사항은 면접시험장에서 채용담당자에게 공개됨. 이것은 채용담당자가 면접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익명채용은 채용담당자의 선입관 때문에 지원자가 가족관계나 사회적 출신, 나이나 성별로 인해 채용과정에서 차별이나 혜택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임. 따라서 지원자는 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이름·성별·국적·출생지·나이·결혼 여부 등이 암시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쓰지 말고 사진도 첨부하지 말아야 함.
 - 지원서 작성 시 특히 성별이나 나이가 표시되는 단어와 표현에 유의해야 함. 예를 들면 경력란에 사무 여직원이 아니라 사무직으로 적어야 하며, 근무기간도 나이가 암시되지 않게 예를 들면, 2004년 1월1일~2011년 6월 31일이 아니라 간단히 7년 6개월로 표기해야 함. 특히 지원동기 작성 시에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중립적 사무실은 접수된 지원서들이 완전히 익명화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지원자의 인적사항이 암시되거나 명시되게 작성된 경우, 교정 절차를 거쳐 채용 담당자에게 보냄.

<http://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4/pressemitteilung.156353.p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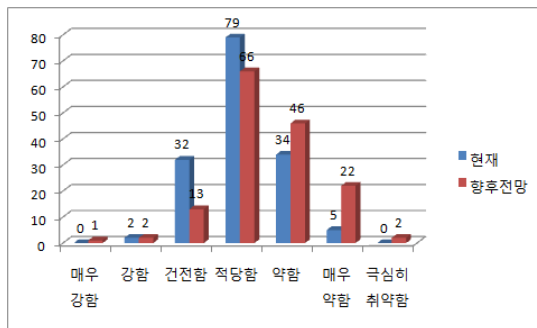
<http://www.berlin.de/lb/ads/anonymisierte-bewerbungsverfahren/faq/index.html>

<http://www.berlin.de/lb/ads/anonymisierte-bewerbungsverfahren/pilotprojekt/index.html>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 시행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 행재정·교육

-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주는 匾 단위 지방정부들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을 실행하기로 함. ‘미래에 적합한 구청들(Fit for the Future Councils, 이하 미래 구청)’이라는 이름의 이번 정책에 주정부는 10억 호주달러(약 1조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정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구청 단위 지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록됨. “미래 구청 지원 프로그램”은 강한 지방정부 구현을 목표로 구청들이 주택, 고용, 도로, 지역사회 서비스 및 기타 기반 시설 제공 등 본연의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미래 구청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된 가장 큰 배경에는 지방정부들의 재정난이 자리 잡고 있음. 2012년 주정부 재정부에 의해 조사된 구청들의 재정 현황에 의하면, 150여 개에 달하는 전체 匾 단위 지방정부의 약 75%는 현재 재정적으로 ‘적당 수준’ 이상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나, 향후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구청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 전체 구청의 약 3분의 1(약 50여 개)만이 현재 흑자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약 절반의 재정 수입을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교부금(Financial Assistance Grants)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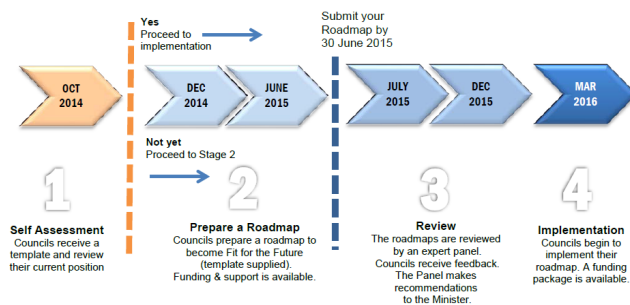
지방정부 재정 장기 지속성 평가

- 조사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전체 구청의 약 3분의 1은 심각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들의 재정 손실은 하루에 약 1백만 호주달러(약 1십억 원)에 달함. 재정 건전도는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도심 지역보다는 외곽에 위치한 지방정부가 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미래 구청 지원 프로그램”은 지방정부 수행 능력 개선 임무를 맡고 있는 ‘지방정부 리뷰 패널(Independent Local Government Review Panel)’의 제언에 기초하고 있음. 리뷰 패널은 3년에 걸친 연구와 자문을 통해 지방정부 혁신안을 마련하여 지난 2013년 10월에 “지방정부 되살리기(Revitalising Local Government)”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http://www.olg.nsw.gov.au/sites/default/files/Revitalising-Local-Government-ILGRP-Final-Report-October-2013.pdf>). 이 보고서에서 리뷰 패널은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미래에 대비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권하고 있음. 즉, 상급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주도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리뷰 패널은 미래에 적합한 지방정부의 요건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재정적 장기 지속성 :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서비스와 기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함.
 - 효과적인 기반시설 관리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 현재 그리고 미래의 지역 사회의 욕구에 기초하여 기반시설을 개발, 관리 및 갱신하며,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효율성 : 산업계 및 지역사회에 부과된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용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함.
 - 지역사회, 산업 및 정부 간 상호 연계 촉진 : 관료주의와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이를 일선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지방정부 경계를 넘어 타 지방정부 그리고 다른 정부기관과의 협력에 기여해야 함.
- “미래 구청 지원 프로그램”의 특징은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들에게 재정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있음. 모든 지방정부는 상기 네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변화를 위한 계획안(proposal)을 제출하도록 권장됨. 이는 강제적이지 않으며, 지방정부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함.
 - “미래 구청 지원 프로그램”이 제시하고 있는 구조적 변화에는 재정, 서비스 전달 체계, 규모 및 수행능력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 모델들이 포함됨. 특

히,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수 구조 변경은 주요한 사안임. 예를 들어, 토지세와 각종 공과금이 지방정부 세수의 약 52%를 차지하여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세율 조정 및 재원 확대 방안 등이 제안될 수 있음. 단, 세율 조정은 단지 세율 인상을 의미하지 않으며,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함.

- 구조적 변화에는 자발적인 합병(voluntary mergers)과 지방정부 간 연계 조직(Regional Joint Organisations) 설립 및 운영 등도 포함됨. 자발적인 합병에는 지방정부 내 동 단위 행정구역 통합과 지방정부 간 구획 간소화 및 재정립 등이 제안될 수 있음.
- “미래 구청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에게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임. 주정부 산하 ‘지방정부청(Office of Local Government)’은 지방정부가 추구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들과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
- 재정분석 및 자산관리 기술을 지원할 전문가 그룹이 설립되며, 자발적 통합을 지원할 경우 이와 관련된 위험, 혜택 및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상의할 조력자(facilitator)가 제공됨.
- 주정부는 2014년 9월에 “미래 구청 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공표했으며, 이미 포럼과 워크숍을 통해 각 지방정부들에게 정보 제공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미래 구청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네 단계로 시행될 예정임. 우선 지방정부는 주정부에서 제공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현재 상태에 대한 자가진단(self-assessment)을 수행하며, 이에 기초한 실행계획(road-map)을 작성함. 2015년 6월까지 실행계획이 제출되어야 하며, 지방정부청은 전문가 패널을 통해 이를 검토하여 사업 시행을 확정할 계획임.



“미래 구청 지원 프로그램” 시행 절차

환경·안전

아동 위기 상황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어린이 110번지의 집’

모의훈련 실시

도쿄都 / 환경·안전

- 도쿄 경시청에서는 ‘어린이 110번지의 집’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음. 이 제도는 어린이들이 위험이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일반 가정집이나 편의점 등에 뛰어 들어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게 함으로써 돌발·위기 상황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어린이 110번지의 집’은 참여를 원하는 개인과 민간 사업자, 지역자치단체 및 학부모 협의회(PTA; Parent-Teacher Association) 등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며, 경시청에서는 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시청 어린이 110번지의 집 마크’를 만들고 자치단체와 기업, 개인 등에 배부하고 있음.
 - 또한 각 지역 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역시 각자 자신의 심볼 마크를 만들고 어린이를 위기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일반 가정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있음. 각 지역 및 사업자마다 고유의 디자인을 사용하여 본 제도에 참가하는 가정과 점포에 ‘어린이 110번지의 집’의 표지판을 부착하게 됨.
- 도쿄 경시청은 ‘어린이 110번지의 집’ 실천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있음.
 - 매뉴얼에는 표시판이 어린이의 눈높이에 해당하는, 눈에 띄는 위치에 부착되어야 하며 언제든지 누구라도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가족과 직

원에게도 설명을 해 두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평소 지역의 범죄 발생 상황이나 수상한 사람에 대한 정보 등을 알아두기를 권고하고 있음.



경시청



네리마 區



아다치 區



일본 프랜차이즈 체인 협회 (편의점)

각 지역자치단체 및 사업장 별 어린이 110번지 표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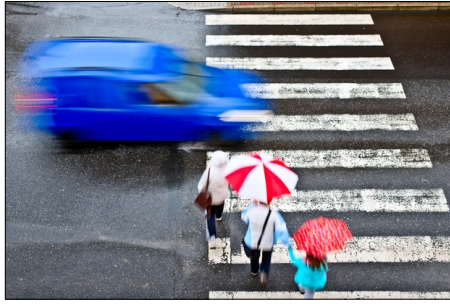
- 도쿄都 청소년·치안 대책본부는 올해부터 3개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110번지의 집’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로 함.
 - 2014년 모의훈련은 9월 둘째 주 토요일 도쿄都 네리마區 어린이 30명과 어른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이번 훈련에는 어린이 범죄에 관한 강연회와 롤플레이팅(role playing) 훈련이 포함되었음.
 - 롤플레이팅 훈련에서는 어린이가 거리에서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는 모의 상황을 설정함. 위험에 처한 어린이는 가까운 ‘어린이 110번지의 집’에 뛰어가야 하며 성인 참여자는 갑작스런 상황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경찰에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모의훈련의 내용임.
 - 도쿄都는 올해 안으로 아다치區에서도 같은 내용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110번지의 집’ 모의훈련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도시교통

보행자 우선 표시의 시각적 효과

미국 시카고市 / 도시교통

- 시카고市에서 시행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행자를 위한 양보 표시에 보다 명확한 시각적 효과가 더해진다면 이를 준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보다 효율적인 법 준수를 위해서는 교육이나 단속 등의 노력과 더불어 효과적인 정보 제공과 시각적 효과가 중요함을 보여줌.
- 시카고市는 4년 전부터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우선표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이 법률의 준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카고 교외 지역 52개 지점에서 시행함. 조사결과에 의하면 보도 및 도로에 안전 표시와 점등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61%의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위한 양보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조사됨. 하지만 이러한 명확한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준수 비율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보행자에 대한 양보가 모든 비 신호 지점에서는 동일하게 준수되어야 하는 규정이지만 시각적인 효과에 따라 준수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는 것임.
 - 또한 많은 시민들이 보행자 우선표시에 대해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으며 여러 상황에 따라 준수 여부가 많이 달라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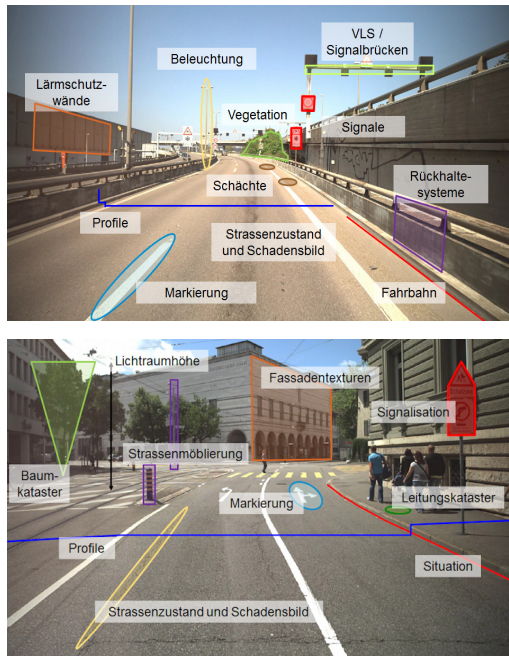
보행자들에게 양보를 하지 않는 운전자의 모습

<http://www.chicagotribune.com/news/local/jonhilkevitch/ct-crosswalk-survey-getting-around-met-0908-20140907-column.html>

도로상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도시 도로 전체에 대한 측량작업 실시

베를린市 / 도시교통

- 베를린市는 처음으로 베를린市 도로 전체에 대한 측량조사 사업에 착수함. 측량의 목적은 市의 도로면의 현재 상태에 대한 통일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 측량은 특수하게 제작된 차량의 이동 측정기술 장치를 통해 이루어짐. 이 차량은 모든 도로, 즉 차도·보도·자전거 도로의 현황과 상태 및 그 부속물의 상태를 조사·기록하게 됨. 여기에는 도로의 설치물들, 예를 들어 차량진입을 제한하는 블라드나 도로 또는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 등의 설치물들도 통일화된 목록 조사를 위해 조사됨. 추가적으로 초대형 화물 운송 관리를 위해서 교각과 신호등, 공중가선(가공가선)의 높이도 정확히 조사·기록됨.
 - 측량차량의 지붕에 장착된 카메라는 도로구간을 3~5m 간격으로 촬영함. 카메라는 도로만을 향해 촬영하고, 촬영된 사진들은 오직 데이터 처리를 위해 사용되며 베를린市 정보보호청의 규정에 의거해 사람과 자동차 번호 등은 익명화됨. 도로 측량조사 기간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임.



도로상태 측량 방식

- 도로 상태의 데이터는 도로계획과 도로유지 및 보수를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됨. 또한 무엇보다 베를린市가 추진하고 있는, ‘라우팅(routing)해 주는 보행자 네트’(das routingfähige Fußgängernetz(Knoten-Kanten-Modell))를 베를린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기초가 됨.
- 市는 지난 해 연구 사업을 통해 미테區의 도로를 측량하고 이 보행자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실험함. 이 시스템이 베를린市 전체로 확대되면 시각장애인들도 베를린의 도심이나 익숙하지 않은 동네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됨.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409/nachricht5349.html

http://www.inovitas.ch/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3&Itemid=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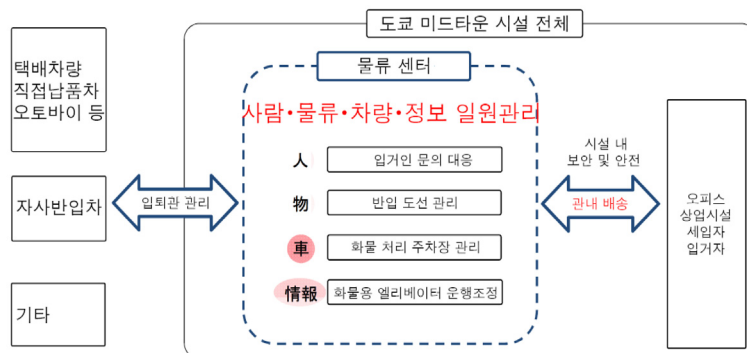
“도쿄 미드타운 관내 물류 효율화 계획”, 지구 물류 효율화 인증 제도의 첫 인증 사례로 선정

도쿄都 / 도시교통

- 도쿄都는 초고층 건물 건축과 도시개발에 수반되는 지구 주변의 물류 차량 증가와 교통 혼잡, 보행자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 7월 1일부터 “도쿄 지구 물류 효율화 인증 제도(東京における地区物流効率化認定制度)”를 운영하고 있음. 이 제도는 지구 내 물류와 관계된 운송사업자, 건물관리자, 상점가 관계자, 화주 기업, 행정기관 등의 자주적인 물류 효율화 노력을 촉진하여 지구 내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구 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지역 활성화와 양호한 마을 만들기를 달성하기 위한 것임.
- “도쿄 지구 물류 효율화 인증 제도”는 먼저 지구 내 물류와 관련된 복수의 사업자들이 연계하여 행정과의 조정을 거쳐 해당 지역의 물류 개선 계획을 수립·신청하면, 도쿄都에서 이를 심사·인증하고 신청자에게 물류 처리에 관계된 지원을 하는 것임.
 - 도쿄都는 이를 위해 심사기관으로서 ‘도쿄의 지구 물류 효율화 인증 제도 인증 심사회’를 설치하였음. 또 물류개선계획의 인증을 위해, 화물 처리 공간을 설치하거나 공동 배송 등을 실시하여 ① 화물차 교통량 및 노상 주차 수 감소, ②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의 안전성 향상, ③ 그 외 환경부하 감소에 따른 양호한 마을 만들기에 공헌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계획일 것 등을 심사 기준으로 마련하였음.
- 도쿄都에서 물류 효율화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은 계획 작성 단계의 지원과 인증 취득 후의 지원으로 나뉨.
 - 계획 작성 단계에서부터 제공되는 지원에는 먼저 관계자 연계를 돕거나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노하우를 제공하는 계획 책정 지원, 지구 내의 독자적 교통 규칙 마련을 위한 교통관리자 등과의 조정 지원, 화물 처리 등에 활용할 공간 확보를 위한 도쿄都 도로정비 보전 공사 주차장 활용 지원 및 도유지 활용 관련 상담 지원 등이 있음.
 - 물류 효율화 계획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도쿄都 도로정비보전공사에서 운영

하는 주차장 이용 우대 및 ‘산업력 강화 용자’ 활용에 의한 금리 우대 대출 등의 금융 지원이 있음.

- 위와 같이 도시개발에 따른 지구 내 물류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체제를 정비, 운용해 온 도쿄都는 2014년 9월에 처음으로 시설 내부의 물류 효율화를 위한 “도쿄 미드타운 관내 물류 효율화 계획”을 지구 물류 효율화 인증제도의 제1호 인증사례로 선정함.
- 사가와큐빈 주식회사(佐川急便株式会社)에서 신청한 “도쿄 미드타운 관내 물류 효율화 계획”은 도쿄都 미나토區 아카사카에 위치한 약 5.5 헥타르의 지구를 대상으로 함.
- 이 관내 물류 계획은 사람·물류·차량·정보의 일원 관리를 통해 상업시설, 오피스, 주택에 배송되는 택배의 공동배송 촉진과 직접 납품 차량을 포함한 입관 차량의 관리를 목적으로 함.
- 이를 통해 건물 입구에서 입주자에 이르기까지의 물류 관련 보안을 확보하고, 편의성 향상과 효율화를 도모하며, 시설 주변 및 노상 화물 차량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도쿄 미드타운 관내 물류 효율화 계획 개요도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4/09/20o9i100.htm>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4/09/DATA/20o9i100.pdf>

도시계획·주택

다섯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 도시종합계획 발표

호주 브리스번市 / 도시계획·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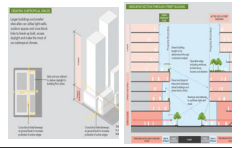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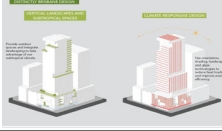
- 브리스번(Brisbane)市는 호주에서 급부상하는 도시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도시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임. 브리스번市는 급속한 도시성장에 따라 새로운 도시종합계획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최근 ① 아열대의 온화한 도시 기후, ② 강을 중심에 두고 있는 도시, ③ 새로운 세계도시라는 세 가지의 핵심 개념을 도시 정체성으로 보고, 도심부 발전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함.
- 도시종합계획은 ① 경제발전(제한 없는 기회), ② 공공 계획(도시민이 마음껏 공공공간을 즐길 수 있는 도시), ③ 건축물(숨 쉬는 도시), ④ 사회 및 문화계획(도시 생활의 중심), ⑤ 교통(인간 중심의 통행)의 다섯 가지 전략을 핵심으로 구성됨. 종합계획의 전략별 상세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제발전 : 제한 없는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계획은 신흥 성장도시의 성격에 맞도록 다양한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둠.

상세 전략	주요 내용	도면
미래 비즈니스 허브	-퀸스랜드 주정부, 민간 개발자와 협력하여 전략발전 사이트를 적극 재개발함. -경제발전을 이끌 도심부에 대한 개발계획과 평가 -디지털 브리스번 전략을 통한 도시 정체성 수립 -디지털 인포메이션 허브로 기능할 교육기관과 도서관 시스템 강화	
웰컴시티	-도시민들이 방문하고 싶은 주요 포인트를 재개발 -도심부, 특히 강변에 보도로 방문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교통과 보행로 개선	
기억할 만한 도시	-이벤트 도시, 여행객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도시프로그램을 개발 -레스토랑, 카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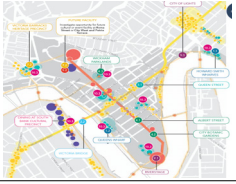
- 공공계획 : 브리스번의 강변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민이 야외 공공공간에서 휴식할 수 있는 전략을 강화함.

상세 전략	주요 내용	도면
수변 공간 활용	-도심부 수변공간을 시민들이 뒷마당으로 생각할 만큼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활동을 장려함. -와프(Warf) 등 수변에 초점을 둔 상점, 수상 레포츠, 조명 등을 개선 또는 신규 개발함.	
녹지망	-녹지 주요 지점을 그물망처럼 네트워크화 할 수 있도록 함 -도심 수목을 기후에 맞도록 다양하게 식재하고, 수변 공간 중 주요 지점들은 대형 수목으로 그늘지도록 식재하는 방법을 선택함.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지역은 소형 식재 중심으로 장소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아름다운 거리	-주요 거리(알버트스트리트, 퀸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어메니티 강화와 보행자와 상점의 인터랙션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보행로와 수변공간이 연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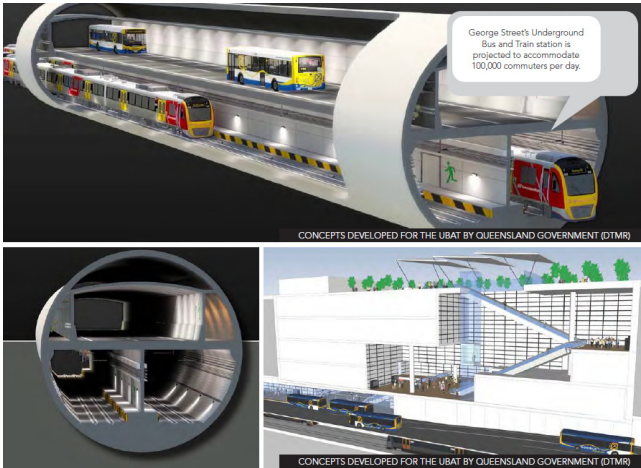
- 건축물(숨 쉬는 도시) : 건축물 외관 자체를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도시의 선선하고 맑은 자연조건을 최대한 냉난방과 채광에 접합시키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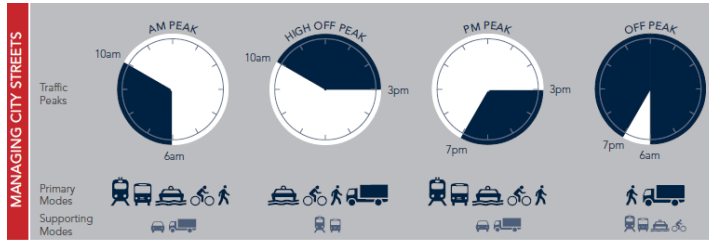
상세 전략	주요 내용	도면
숨 쉬는 도시	-1지점: 도시의 미관을 주로 책임지게 될 부분으로, 강변과 공공공간, 성당과 역사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통일성 강조 -2지점 : 완전한 신도시 개념으로 신소재 신개발 -3지점 : 역사 문화성을 강조해 유지 재보수	
성장하는 스카이라인	-기존의 마천루 중심의 고층 건축물이 아닌 스카이라인의 다양성과 혼합용도를 적절하게 믹스시킬 수 있는 건축물 장려 -옥상정원, 고층건축물 테라스, 파사드를 통해 도심 기후 개선	
활기찬 거리	-건축물 사이에서도 보행자가 느낄 수 있는 경관과 연속성 극대화, 건축물 내외에서 모두 도시 전체를 느낄 수 있는 디자인 강화	
디자인 우수성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건축물의 신규 건축 장려	

- 사회 및 문화계획(도시생활의 중심) : 도시의 문화활동을 특정 예술행위나 이벤트에 한정하지 않고 일상의 모든 도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무대로서의’ 도시를 지향함.

상세전략	주요내용	도면
열린 문	-도시의 모든 공공 공간과 요소들이 브리스번 유지업의 확장이라 느낄 수 있도록 개방성을 넓히고, 도시 정부 소유의 유물 유적은 일반에 개방하도록 함.	-
세계적 수준의 문화경험	-현재 있는 문화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아웃도어 이벤트, 문화시설, 오락과 식당가 등을 주요 ‘문화적추’로 지정하여 이를 축으로 문화 활동을 육성함.	
모든 공간이 무대	-도시의 모든 활동을 문화로 보고 행위 예술, 길거리 음식, 놀이, 이벤트와 페스티벌, 스포츠와 여가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모두 무대라 지칭하고 계획함.	

- 교통(인간 중심의 통행) : 신흥 개발도시답게 보행통행을 최우선으로 차량과 지하철 모두 지하 통행을 지향하고, 특히 도심부에서는 2031년을 목표로 보행통행에 48% 이상을 의지하도록 계획함. 교통계획에서 전반적인 통행의 연계나 다양한 통행수단의 활용은 기존의 도시와 유사하나 ① 차량의 지하통행, ② 시간대별 교통수단별 도로사용 방법 공유라는 특별한 정책을 계획함.





- 브리스번 도시종합계획은 2014-2019까지의 단기 계획을 포함하면서 최종 2034년까지 바라보는 장기 종합계획으로, 계획의 시행 과정에 있어서 거버넌스를 위해 ‘city cabinet’이라는 tool을 준비함. 이 ‘city cabinet’을 통해 계획 진행 상황에 대해 시민 및 기타 여러 부문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됨.
- 단기계획에는 상세 프로젝트들을 함께 수록하여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의 목표와 실행과정을 모두 설명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의 광범위함을 일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표를 많이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함.

<http://www.brisbane.qld.gov.au/sites/default/files/20140417-City%20Centre%20Master%20Plan-full%20document.pdf>